

“불멸의 밤, 호러 토크쇼에 초대합니다”

심야괴담회

MBC 괴담으로 공포·웃음 선사
11일 온라인 제작발표회 가져

지난 1월 단 두 번의 방송만으로 시청자들에게 공포와 웃음을 선사한 MBC TV 예능 '심야괴담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심야괴담회'는 시청자들을 통해 공모받은 무섭고 괴기한 이야기들을 거꾸는 호러 토크쇼다. 안방극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남량 프로그램으로 방송 이후 이야기를 담은 짧은 클립들이 인기를 끌며 호평을 받았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을 맡게 된 코미디언 김숙(46)은 11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정규 편성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다. 예전에는 (괴담을) 숨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며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정규 편성이 안 될 줄 알았다"며 "저는 (공포를)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아해 출가 싶었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가고 분위기가



김 숙 “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괴담의 장 펼쳐져”

김구라 “괴담을 믿는 마음 파괴하는 것 아니야”

황제성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출연자 ‘어둠시니’ 흥미”

심심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새 MC로 합류하게 된 방송인 김구라(51)는 "많은 분이 '괴담(괴담을 믿는

마음을 뜻하는 신조어) 파괴'라고 하셔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다"라면서 "평소 괴담을 잘 믿는 편이 아니지만, 열심히 귀를 기울일 테니

너무 이방인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임채원 PD는 "이 야기꾼으로도 주목받는 김숙 씨의 집을 나눠 기질 다른 MC를 몰색하다 김구라 씨를 섭외하게 됐다"며 "파일럿 프로그램 당시 객석식 박사님이 '괴심 파괴'로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그 역할을 나눠서 '괴심 파괴' 브로맨스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김구라를 섭외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규 프로그램과 파일럿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드라마화에 능한 김호성 PD가 새롭게 합류해서 좀 더 몰입감 있게 영상을 구성하려 한다. 또 심의 부담이 좀 덜어진 만큼 더 무섭고 독특한 괴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PD는 또 "괴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생자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조건들이 계속된다면 괴담 또한 계속될 것 같다. 괴담을 통해 사회를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숙과 같이 파일럿에 이어 '심야괴담회'의 멤버로 함께하게 된 황제성은 "저희 프로그램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출연자 '어둠시니'가 있다"며 "전국의 어둠시니 분들께서 '심야괴담회'로 일어서 양지로 나오셨으면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송혜교, 안방 복귀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출연

배우 송혜교(40·사진)가 SBS TV 새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로 2년 만에 안방에 복귀한다.

SBS TV는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이 출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사랑했던 연인들의 이별을 그리는 작품으로, 드라마 '미스티'(2018)로 데뷔한 제인 작가와 '자이언트'·'별에서 온 그대'의 활영과 '낭만닥터 김사부 2'의 연출을 맡았던 이길복 PD가 참여했다.

송혜교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이자 자기관리에 철저한 패션회사 디자인팀장 하영은을 연기한다.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출 장기용은 재력과 능력, 외모까지 완벽한 포토그래퍼 윤재국 역을, 최희서는 완벽한 배경 뒤에 결핍을 숨긴 패션회사 디자인팀 총괄이사 황지숙 역을, 김주현은 화려한 겉모습 속에 어린 순정을 품은 피알회사 대표 석도훈 역을 맡는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4월 첫 촬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학폭 말이 안되는 소리...땀땀하다”

개그맨 홍현희 의혹 정면 반박

개그맨 홍현희(사진)가 최근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홍현희는 11일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학창 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를 비하하면서 따돌렸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학교폭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말 땀땀한 만큼 대면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신을 홍현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학창 시절 홍현희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당했으며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현희 소속사는 "해당 글 작성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글을 써왔다. 수년간에 걸쳐 게시된 댓글과 허위 주장을 모두 수집해왔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빠른 전개에 긴장감까지...tvN '마우스' 수목극 1위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6% 기록
'시지프스' 4.6%, '안녕...' 3.9%

tvN '마우스'가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6%를 기록하면서 수목극 1위를 차지했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된 tvN '마우스'의 시청률은 6%(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상위 1%인 프레데터를 잡기 위한 정비팀(이승기 분)과 고무치(이희준)의 본격적인 공조가 그려졌다.

한편 성요한(권화운)은 대니얼 리(조재운) 박사를 살해하고,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붕이 할머니가 시체 사진이 준비한 지하실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돼 할머니를 쫓는다.

결국 붕이 할머니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

으로 발견되고, 바름은 용의자를 잡으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정신을 잃는다.

첫 회부터 연출, 연기, 스토리 등 모든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마우스'는 3회부터 극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었다.

또 최근 쏟아진 많은 장르극 작품 중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추리의 핵심인 긴장감을 높였고, 빠른 전개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충격적 소재에 안정적인 연기, 영화 같은 연출, 빠르면서도 짜임새 있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그 폭발력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날 방송된 JTBC '시지프스: 더 미스'의 시청률은 4.633%(비지상파 유료가구), KBS 2TV '안녕? 나야!'는 3%~3.9%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금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